

모자보호시설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of Institutionalized Single-Mother Families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양호 · 박정희 · 유계숙 · 전춘애

Korean Institute of Family Counseling and Education

Research Fellows : Kim, Yangho · Park, Junghee · Yoo, Gyesook · Jun, Chunae

■ 목 차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I.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 III. 프로그램의 목표 및 구성

- IV.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 V. 논의 및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evaluate a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of institutionalized single-mother families. Based on the strong family perspective and empirical research in this field, the program was developed to enhance children's self-esteem and social ability, and to help children accept diverse family patterns. The program consists of four 60-minute sessions. Ten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 two institutions for single-mother families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The results of program evaluation revealed that this program was helpful for promoting children's personality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their family life of institutionalized single-mother families.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모자보호시설 입소 모자가정(institutionalized single-mother families), 모자보호시설 입소 아동(children of institutionalized single-mother families),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나라의 편부모 가정의 수는 1995년 전체 가구수 1천만2백9십5만8천181세대 중 약 7%에 해당하는 9십5만9천972세대로 나타났으며, 그 중 모자가정

의 비율은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1996). 이러한 비율은 최근 이혼, 미혼모, 중년남성의 사망률 증가 등으로 인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모자가족의 증가는 이제 우리 사회의 중

요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모자가정의 복지적 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자가정이란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미혼모 및 기타 사유에 의해 편모가 된 여성이 18세 미만의 아동(취학 시에는 20세 미만)을 양육하는 가족으로서 그들이 갖는 특수한 어려움 때문에 여성복지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모자가정의 편모는 기존의 어머니 역할과 가정주부 역할 외에 경제적 부양자 및 아버지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며 (Berman & Turk, 1981; Weiss, 1979),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정서문제,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과 이에 따른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옥선화·성미애·허정원, 2001; 이해경, 1998; 한국여성개발원, 1988; 황성철·최선희, 1997).

모자가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녀 문제로는 교육 기회의 부족, 양육상의 방임과 학대, 가족원들의 정서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김기환, 1995; 김영희·김갑숙·최외선, 1995; 최선애, 1984). 특히, 생활보호 대상인 저소득 모자가정으로서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의 경우, 그들 가정이 겪는 경제적 곤란 외에도 '결손가족', '시설보호'와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자존감 저하, 아버지의 부재나 부모의 부부 불화, 가정내 폭력이나 학대받은 경험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적응 능력 부족 등 심각한 사회·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양호·박정희·유계숙·전춘애, 2002).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모자가정 아동들로 하여금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위축된 사회성을 증진시키며, 가족의 다양성을 이해함으로써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정서발달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한 가족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으나(가족과 성 상담소, 1999; 김경신, 1997; 한국여성개발원, 1986), 김경신(1997)

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교육 실시를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및 지속적인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은 교육실시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요구도 조사를 기초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자가족이 처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그리고 교육대상도 대부분 자녀의 연령상 동질성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청소년 자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정서발달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각 모자보호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아동교육 프로그램은 대다수가 컴퓨터나 음악, 미술과 같은 특기교육 및 방과후 학습 위주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의 운영도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비지속적 또는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김양호 외 3인, 2002), 모자보호시설의 아동들이 다양한 사회·정서적 문제들을 극복하고 건전한 인성발달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모자가정의 아동들이 자신과 가족, 친구,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과 대인관계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 모자보호시설 아동교육 프로그램 보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미래의 건강한 시민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건강가족적 관점을 기초로 모자가족의 적응에 관한 문헌적 고찰 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아울러 서울시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및 입소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 건강가족적 관점

가족원 개개인을 건강하게 육성시키고, 사회 전체를 건전하게 하는 것은 가족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가족에 관한 연구들은 문제가 있고 역기능적인 가족에 주로 초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요인보다 가족을 위협하는 요인에 익숙해져 있고, 그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족을 조망하고자 하는 관심이 대두되면서 Stinnett(1977)와 Beavers(1977) 등이 건강한 가족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하였고, 이후 여러 가족학자들(유영주·어은주, 1994; Ammons & Stinnett, 1980; Ball, 1976; Stinnett & Sauer, 1977)에 의하여 건강한 가족의 특성 및 관련 변인을 탐색하는 것으로 연구영역이 확대되었다(유영주, 2001, 재인용).

한편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혈연으로 맺어진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만을 '정상가족(normal family)'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자가족 성원들은 '결손가족' 혹은 '문제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편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즉 편모 여성이나 모자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이들을 차별하거나 문제가 있는 가족으로 비하하는 행동을 유발한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편모 여성 중 자신이 편모라는 사실을 주변에 얘기하는 사람은 30% 정도이며, 나머지 70%에 가까운 여성들은 자신이 편모라는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한 이유로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 있는 여자로 인식될까봐', '쓸데없는 동정심이 싫어서', '무시당할까봐' 등이 거론되었다(가족과 성 상담소, 1999). 그런데 편모 여성이나 모자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편견에 대한 인식과 억압이 편모 여성들에게 내면화되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이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달됨으로써 아동들의 정신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모자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저소득 편모가족의 아동

들은 학교생활 및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가족상황이나 입소 사실이 노출될 때 심한 자존감의 저하를 경험하게 되고(김양호 외 3인, 2002), 이러한 경험이 결과적으로 학교 부적응이나 사회적 비행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자보호시설 아동들의 건강한 사회·정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자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의 현재 모습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수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과거의 상처나 현재 당면한 문제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자신이 성취했던 경험이나 개인 및 가족의 강점(family strengths)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시켜줌으로써 아동의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다. 또한, 모자가족이 문제를 지난 특수한 가족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임을 인식함으로써 아동 자신과 가족, 친구,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다.

2. 모자가족의 적응과 모자보호시설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모자가족에서의 모-자녀관계는 가족의 행복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요인이다. 건강한 편모가족의 특성에는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지 외에 가족간의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신뢰감 등이 포함되며 (Hansen, 1986), 모-자녀 관계의 질은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Peterson & Zill, 1986). 특히 편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어머니의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erg & Kelly, 1979). Booth & Amato(1991), Webster-Stratton(1989)에 의하면, 편모가족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 역할과중, 사회적 편견, 정서적 지원의 부족 등이 지적되었으며, 어머니의 양육기술, 어머니의 적응 상태, 자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등은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자가족의 적응에는 편모의 양육태도뿐 아

니라 교육적 지원이나 지역사회의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모자가족과 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Kennedy, 1985). 즉 이들의 적응에 사회적 활동이나 자율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편모의 직업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Berman & Turk, 1981; Campbell & Moen, 1992)이 보고되었다. 이 밖에도 친족관계 역시 모자가족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Gerstel, 1988),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자가족 성원들에 대한 친족의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김정자, 1985; 안명자, 1994).

김양호 외 3인(2002)은 서울에서 모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4개 시설 종사자들과 입소 모자가정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가족생활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설문 및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모자시설 아동을 위한 사회·정서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 종사자들은 입소 전 부모의 이혼이나 폭력 등으로 인한 자녀들의 정서적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아동들이 시설에 입소한 가족의 현실을 거부하거나 입소 사실이 학교에 노출될 때 심한 자존감의 저하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입소 동기(예, 이혼, 가정폭력, 사별, 미혼모 등)에 대한 어머니들의 편견이 시설내 아동들간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전문 상담교사가 필요하며,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학습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방과후 보조교사의 확보 역시 시급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모자시설에 입소한 어머니들의 경우, 양육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은 자녀들의 학업성취 문제라고 응답하였으며, 사회적 편견 때문에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입소 사실을 외부에 밝힐 수 없는 자존감의 문제, 모자가정에 대한 정서적 지지의 부족, 편모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획일화된 가족 가치관, 직무상의 시간 부족 및 양육기술 부족으로 인한 모-자녀간 적절한 상호작용의 부재,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및 시설 내 부적응 문제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자보호시설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을 도모하고, 모-자녀관계 향상을 통하여 바람직한 가족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어머니들의 양육기술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모자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은 경제적 보조와 탁아 및 자녀들의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모자가족의 심리적 복지와 그들의 건강한 가족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서적 교육의 지원도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심리·정서적으로 중요한 발달적 시기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모자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가족과 성 상담소, 1999; 김경신, 1997; 한국여성개발원, 1986)이 개발되고 있으나, 교육요구도 파악이나 프로그램의 실시와 이를 통한 교육적 효과의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모자가족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기 자녀들의 건강한 사회·정서 발달을 도모하는 전문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III. 프로그램의 목표 및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편모가족의 아동들이 자신과 가족, 친구,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과 대인관계를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모자보호시설 아동에게 자신의 소중함과 장점을 인식시킴으로써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둘째, 원만한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친구의 소중함과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인식시킴으로써 모자보호시설 아동의 사회성을 증진시킨다. 셋째, 모자보호시설 아동에게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공동체가족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들을 소개함으로써 가족의 다양성에 대하여 수

<표 1> 제 1단계 '지랑스러운 나' 강의안

목표	1.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 2. 자신의 긍정적인 점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의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프로 그램	전개	내 용	시간	준비물
	도입	자기 소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10분	이름표
	활동 및 강의	[활동 1] 동화 '누가 뭐래도 나는' 을 읽고, 주인공과 대화하기 [강의] '나는 왜 소중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설명 [활동 2] '내가 했던 사랑스러운 일' 알리기 [활동 3] '나는 특별한 사람이랍니다' 게임	10분 5분 15분 15분	워크북, 필기도구, 손인형 화이트 보드, 펜 장점목록, 응판지, 펜 게임용 보드
	종결	1. 제 1단계 요약하기 2. 제 2단계 내용 소개 및 과제* 주기	5분	

*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고, 그 친구가 좋은 이유를 적어오기.

<표 2> 제 2단계 '우리는 사이 좋은 친구' 강의안

목표	1. 자신의 친구관계 점검을 통하여 친구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2. 모자보호시설 내 아동들간의 협동심을 증진시킨다.			
프로 그램	전개	내 용	시간	준비물
	도입	지난 시간 내용 및 과제 확인	5분	이름표
	활동 및 강의	[활동 1] 동화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행복해져요'를 듣고 느낀 점 나누기 [활동 2] 자신이 앞으로 친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 적어보기 [강의] 좋은 친구를 만드는 방법 [활동 3] 모자원 친구들과 협동하여 꿀라쥬화 완성하기	10분 5분 10분 35분	동화내용 녹음 및 그림 워크북, 필기도구 차트, 워크북 꿀라쥬화 재료
	종결	제 2단계 요약하기	5분	

<표 3> 제 3단계 '여러 가지 모습의 가족들' 강의안

목표	1. 여러 가지 모습의 가족들을 통하여 가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2. 가족원들간의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낀다.			
프로 그램	전개	내 용	시간	준비물
	도입	지난 시간 내용 확인 및 제 3단계 개요	5분	이름표
	활동 및 강의	[활동 1] '여러 가지 모습의 가족들' 퍼즐 작업 [강의]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설명 -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공동체가족 [활동 2] 비디오 시청 - 서로 사랑하는 가족의 사례, '우리 가족 킹스 패밀리' [활동 3] 나의 가족 소개	20분 5분 10분 15분	퍼즐판과 퍼즐조각 화이트보드, 펜, 워크북 VCR, 비디오테이프 워크북, 필기도구
	종결	1. 제 3단계 요약하기 2. 과제 주기*	5분	

* 다음 시간(제 4단계)에 어머니 모시고 함께 오기

〈표 4〉 제 4단계 '엄마랑 나랑 행복한 우리 가족' 강의안

목표	1. 적극적인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배운다. 2. 모자가족의 갈등상황에서 발생하는 분노를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3. 어머니와 자녀의 바람직한 관계유지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한다.			
	전개	내 용	시간	준비물
프로 그램	도입 활동 및 강의*	지난 시간 과제 확인 및 어머니들의 자기 소개	5분	이름표
		[활동 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결과 보고 및 설명	5분	이동이 응답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질문지
		[강의 1] 부모의 양육태도	5분	
		[활동 2] 자녀와의 갈등상황 역할극	20분	워크북, 교육용보드,
		[강의 2] 바람직한 부모역할 및 갈등 상황시 분노 조절	10분	화이트보드, 펜
	아동 대상	[강의 3]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중요성	10분	
		[활동 3]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 실습	10분	
	종결	[활동 1] 어머니께 편지 쓰기 [활동 2] 레크리에이션	60분	편지지, 필기도구 피아노, 주사위 게임
		1. 제 4단계 요약하기 2. 어머니께 편지 읽어드리기(자녀의 편지 읽기)	10분	자녀의 편지

* 어머니 교육과 아동 교육을 별개의 방에서 실시함.

용적 태도를 가지도록 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의 형태보다 가족성원들의 사랑과 배려가 중요함을 인식시킨다. 넷째, 모자보호시설 아동의 어머니에게 바람직한 부모역할상을 제시하고, 애정적인 모자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건강한 모자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자료집(workbook) '행복한 우리 가족, 자랑스러운 나'와 3단계에서 이용된 퍼즐 '여러 가지 가족의 모습들'을 개발 제작하여 프로그램 실시 과정에 이용함으로써 각 단계의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하위 목표와 구체적인 강의안은 다음의 〈표 1〉~〈표 4〉와 같다.

IV.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1. 프로그램의 실시 대상 및 방법

1) 프로그램의 실시 대상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자보호시설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행복한 우리 가족, 자랑스러운 나'는 서울시 소재의 2개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초등학교 아동 10명(남아 2명, 여아 8명)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각 모자원에서 실시되었다. 본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아동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2001년 4월~5월 중 서울시의 7개 모자보호시설(2001년 4월 현재) 가운데 소재 지역, 시설 규모 및 수용 인원 구성이 유사한 A 모자원과 B 모자원 두 곳을 선정하였으며, 각 시설 종사자(총무 및 상담원)와 접촉하여 본 교육 프로그램의 일정에 따라 방과후 참여가 가능한 아동 5명씩 10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아동의 어머니에게는 각 모자원을 통하여 본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일정을 소개하는 협조문을 전달함으로써 자녀의 교육 참여에 대한 어머니들의 동의를 얻었다. 4회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10명의 아동 모두가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으며, 4단계의 부모교육에서 B 모자원 아동의 어머니 한 명만이 직업상의 문제로 참여하지 못하였다. 본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들의 인구학적 특징은 〈표 5〉와 같다.

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 아동 10명

<표 5> 교육대상 아동들의 인구학적 특징

(N=10)

모자원명	아동명	아동 성별	아동 연령(세)	형제 수(명)	모자가정이 된 경로(어머니의 전혼해체 유형)	입소기간	어머니 연령(세)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직업
A	ㄱ	여	8	0	이혼	1년 7개월	34	고졸	보험설계사
	ㄴ	여	10	0	이혼	10개월	34	고졸	무직
	ㄷ*	여	13	1	이혼	2년 11개월	37	고졸	어린이집 교사
	ㄹ*	여	11						
B	ㅁ	여	12	1	이혼	2년 11개월	47	고졸	파출부
	ㅂ	남	8	0	이혼	1년 3개월	37	대졸	방과후 교사
	ㅅ	남	8	1	가정폭력으로 이혼	6개월	26	고졸	미용사
	ㅇ	여	11	1	사별	2년 8개월	38	고졸	파출부
	ㅈ	여	11	0	미혼모	1년 5개월	40	고졸	유치원 교사
	ㅊ	여	12	1	가정폭력으로 이혼	8개월	35	대졸	텔레마케터

* 아동 ㄷ과 ㄹ은 자매관계임.

의 평균 연령은 104(범위 8~13세)세였으며, 그들의 어머니는 대부분 30대로 평균 연령은 36.44(범위 26~47세)세였다. 모자가정이 된 경로를 알기 위해 어머니들의 전혼 해체 유형을 조사한 결과, 이혼자 8명, 사별자 1명, 미혼모 1명으로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대다수의 가족들이 이혼으로 모자가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은 평균 1년 9개월(범위 6개월~2년 11개월)로 아동 ㄷ, ㄹ과 ㅁ, ㅇ의 가정은 시설의 보호기간 3년이 거의 되어 퇴소를 앞두고 있다. 어머니들의 평균 자녀 수는 1.56명으로 10명의 아동 중 외동아는 4명, 나머지 6명은 모두 형제가 한 명 있는 두 자녀 가정의 아동이었다.

어머니들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부분이며, 대졸 학력자는 2명뿐이었다. 어머니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어린이집·방과후·유치원 교사 3명, 파출부 2명,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미용사 각 1명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거의 대부분이 취업을 하였으나(아동 ㄴ의 어머니는 선교원 교사로 일하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현재 구직 중임), 비교적 저임금 직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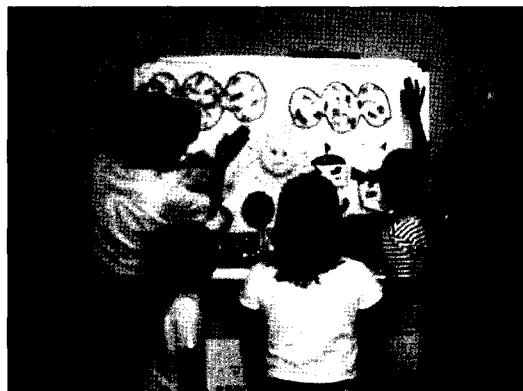
2) 프로그램의 실시 방법

본 교육 프로그램은 2001년 6월 8일부터 6월 29일에 걸쳐 매주 한 시간씩 4회의 교육이 각 모자원의 도서실에서 실시되었다. 전반적인 교육은 연구자들이 제작한 교육 자료집(workbook) '행복한 우리 가족, 자랑스러운 나'를 통한 강의와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4명의 강사가 차례대로 각 단계의 교육을 담당하고, 다른 세 명이 활동을 보조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매회 교육에서 설정한 목표 설명을 시작으로 도입에서 지난 시간의 과제를 점검하고 느낌을 나누는 워밍업을 한 뒤(5분), 제 1단계 자랑스러운 나(자아존중감 향상), 제 2단계 우리는 사이 좋은 친구(사회성 증진), 제 3단계 여러 가지 모습의 가족들(가족의 다양성과 소중함 이해), 제 4단계 엄마랑 나랑 행복한 우리 가족(건강한 모자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 기술 향상) 등 각 단계와 관련된 주제를 제시하고, 워크샵 작성 및 발표, 손인형으로 동화 주인공과 대화하기(그림 1 참조), 게임, 끌리쥬 협동화 완성하기(그림 2 참조), 여러 가지 가족의 모습 퍼즐 맞추기(그림 3 참조), 비디오 시청, 역할극, 어머니께 편지 쓰기,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활동과 강의(45~60분)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힌 후, 그 날 배운 것을 요약하고



<그림 1> 제1단계의 동화주인공과 대화하기



<그림2> 제2단계의 협동 끌리쥬화 완성하기



<그림 3> 제3단계의 퍼즐작업



<그림 4> 제4단계의 어머니께 편지 전하기

과제를 부여하며 종결(5분)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제 4단계에서는 참가 아동의 어머니를 함께 참석시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어머니들에게는 사전검사에서 자녀가 응답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결과를 설명해주고,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및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주제로 강의와 실습을 진행하였다. 어머니 대상 교육이 실시되는 동안 별개의 방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머니께 편지 쓰기와 주사위 게임, 노래 부르기 등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부모교육이 끝난 후 전체가 모여 각 아동이 어머니에게 자신이 쓴 편지를 읽어주고(그림 4 참조), 어머니들의 소감과 답변을 듣도록 함으로써 모자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한편 본 교

육 프로그램에서는 참가 아동들의 연령 및 발달수준의 편차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시 혼합 연령집단의 역동성(예, 협동화 완성하기)을 유도하고, 각 아동의 발달수준에 맞도록 일부 활동의 난이도를 융통적으로 조정(예, 퍼즐 작업시 저학년 아동은 교사의 도움을 받음)하였다.

2. 프로그램의 평가

1) 프로그램의 평가 도구

본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참가 아동 10명의 자존감, 사회성 및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제 1단계

시작 전에 사전검사, 제 4단계 종료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검사지에 대한 저학년 아동의 이해를 돋기 위해 교사가 1:1로 아동에게 설명을 해 주도록 하였다. 모든 프로그램 평가 도구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작성하였으며, 사전검사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존감 척도, 사회성 척도,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 척도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아동용)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사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존감, 사회성,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 척도를 재실시하였으며, 어머니들에게는 프로그램 종료 후 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5점 척도 및 개방형 질문)를 부탁하였다.

자존감 척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여부를 묻는 7개의 문항들(예 1점, 아니오 0점)로 구성되며, 총점(점수범위 0~7점)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성 척도는 친구관계나 대인관계에서 아동의 배려나 협조 정도를 묻는 5개의 3점 척도 문항들(잘했음 3점, 보통 2점, 잘 못했음 1점)로 구성되며, 총점(점수범위 5~15점)이 높을수록 사회성도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는 가족의 형태에 관한 고정관념(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아동의 찬물을 묻는 10개의 문항들(예 0점, 아니오 1점)로 구성되며, 총점(점수범위 0~10점)이 높을수록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는 자율-통제, 성취-안일, 수용-거부, 보호-방임과 관련된 어머니의 행동을 진술한 20개(4개의 차원 각 5문항)의 문항들(예 1점, 아니오 0점)로 구성되며, 4개의 차원 각각에서 총점(점수범위 0~5점)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자율성과 성취를 격려하고 수용적이며 보호적인 태도로 양육함을 의미한다. 아동의 자존감, 사회성,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 척도 및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 각각의 신뢰도는 $\alpha=.83$, $.71$, $.89$, $.73$ 으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관련연구자 2인으로부터 각 척도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2)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본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들이 평소 자신의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는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질문지를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자녀들은 대체로 자신의 어머니가 애정을 가지고 수용적이며, 학업 성취나 목표 달성을 격려한다고 지각하였다. 특히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돌보아주는 보호적 양육태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자녀의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통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본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인 아동의 자존감, 사회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수용적으로 대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아동의 수용도와 각각 $r=.90(p=.000)$, $r=.72(p=.02)$ 의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어머니의 보호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존감 역시 유의한

<표 6>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N=10$)

아동명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율성 강조	아동의 성취 격려	수용적 양육태도	보호적 양육태도
ㄱ	2	3	4	4
ㄴ	2	3	3	5
ㄷ	3	5	5	5
ㄹ	4	5	5	4
ㅁ	2	4	5	5
ㅂ	2	4	3	5
ㅅ	2	3	3	5
ㅇ	2	5	4	5
ㅈ	1	4	4	4
ㅊ	1	5	3	5
전체평균 (표준편차)	2.10 (0.88)	4.10 (0.88)	3.90 (0.88)	4.70 (0.48)

* 아동 ㄷ과 ㄹ은 자매관계로 ㄷ이 언니, ㄹ이 동생임.

〈표 7〉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존감, 사회성 및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간의 상관관계 (N=10)

아동의 사전검사 점수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율성 강조	아동의 성취 격려	수용적 양육태도	보호적 양육태도
아동의 자존감	.17	-.34	-.02	.66*
아동의 사회성	.16	-.16	-.16	.29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아동의 수용도	.90***	.41	.72*	-.11

* p< .05 *** p< .001

〈표 8〉 아동의 자존감, 사회성 및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 사전·사후검사 점수 및 Wilcoxon 분석결과 (N=10)

평가 영역	각 아동의 점수			사전검사 점수 전체평균(표준편차)	사후검사 점수 전체평균(표준편차)	Z값
	아동명	사전	사후			
자존감 (1단계)	ㄱ	3	4	3.70 (1.77)	4.30 (2.26)	-1.40
	ㄴ	6	6			
	ㄷ	5	6			
	ㄹ	2	3			
	ㅁ	6	6			
	ㅂ	5	5			
	ㅅ	4	6			
	ㅇ	3	6			
	ㅈ	1	0			
사회성 (2단계)	ㄱ	2	1	13.00 (1.56)	13.40 (1.65)	-1.00
	ㄴ	15	15			
	ㄷ	14	14			
	ㄹ	15	15			
	ㅁ	12	10			
	ㅂ	12	14			
	ㅅ	13	13			
	ㅇ	12	12			
	ㅈ	10	12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 (3단계)	ㅊ	14	14	3.60 (2.59)	5.50 (3.63)	-2.21*
	ㄱ	1	1			
	ㄴ	3	7			
	ㄷ	6	10			
	ㄹ	9	9			
	ㅁ	5	10			
	ㅂ	3	2			
	ㅅ	3	5			
	ㅇ	4	6			
	ㅈ	2	5			
	ㅊ	0	0			

* p< .05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66$, $p=.04$). 즉 자녀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양육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호적인 태도로 양육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

3)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인 아동의 자존감(1단계), 사회성(2단계) 및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3단계)가 어느 정도 증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세 가지 영역에서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Wilcoxon의 종속표본 기호등위검증(Matched-Pairs Signed-Ranks Test)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 총점에서 사전·사후검사의 평균값이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Z=-2.21$, $p=.027$) 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가 아동들이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공동체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자존감과 사회성 역시 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평균값이 증가된 경향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니었다. 특히 아동의 사회성은 이미 사전검사 결과에서부터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편모가족의 아동들이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여러 연령층의 아동들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 수가 매우 적고, 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 및 발달수준에 다소 편차가 있다는 점도 자존감과 사회성 점수에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모자보호시설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4) 프로그램에 대한 어머니들의 평가

본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교육 종료 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어머니들은 본 교육 프로그램이 모자가정에 대체로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신의 자녀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가정에서 행동의 변화를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각 가정에서 나타난 아동의 행동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엄마의 말에 ‘예’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한다(ㄷ. 근의 어머니),” “세제를 사용하여 설거지를 도와주었다(ㅅ의 어머니),” “자기 표현이 자유스러워졌다(ㅈ의 어머니),” “가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ㅁ의 어머니),” “교육 프로그램에 다녀와서 엄마에게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안건이 새로이 생겼다(ㅂ의 어머니).”

한편 어머니들이 본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른 내용 중 가장 인상깊었다고 응답한 것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엄마와 아이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부모역할에 대한 강의 내용이 인상깊었다(ㄱ의 어머니),” “나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인상깊었다(ㄷ. 근의 어머니),” “자녀에 대한 화법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ㅁ의 어머니),” “나는 어떤 형의 엄마였던가를 생각해보게 되었다(ㅅ의 어머니),” “어머니들간에 공통적인 화제(자녀양육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가장 직접적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녀교육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ㅂ의 어머니),” “앞으로 감정 조절을 적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ㅈ의 어머니),” “아이가 교재에 있는 ‘나의 가족 소개’에 그림을 그려서 우리 가족을 표현한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ㅊ의 어머니).”

끝으로 어머니들이 본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점이나 교육 내용에 더 첨가되기를 바라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이에게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ㄱ의 어머니),” “어머니들에 대한 상담이 병행되었으면

<표 9> 프로그램에 대한 어머니들의 평가 결과

(N=7)*

평가 항목	각 어머니의 평가점수	전체평균(표준편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자녀들의 생각이나 행동 (예, 가족에 대한 생각, 친구와의 관계, 자신에 대한 생각, 엄마와의 관계 등)의 변화 정도	ㄱ의 어머니 ㄷ, ㄹ의 어머니 ㅁ의 어머니 ㅂ의 어머니 ㅅ의 어머니 ㅈ의 어머니 ㅊ의 어머니	4 4 5 4 4 4 3
	ㄱ의 어머니 ㄷ, ㄹ의 어머니 ㅁ의 어머니 ㅂ의 어머니 ㅅ의 어머니 ㅈ의 어머니 ㅊ의 어머니	5 4 5 4 4 4 4
	ㄱ의 어머니 ㄷ, ㄹ의 어머니 ㅁ의 어머니 ㅂ의 어머니 ㅅ의 어머니 ㅈ의 어머니 ㅊ의 어머니	4.00(0.58) 4.29(0.49)
	ㄱ의 어머니 ㄷ, ㄹ의 어머니 ㅁ의 어머니 ㅂ의 어머니 ㅅ의 어머니 ㅈ의 어머니 ㅊ의 어머니	
	ㄱ의 어머니 ㄷ, ㄹ의 어머니 ㅁ의 어머니 ㅂ의 어머니 ㅅ의 어머니 ㅈ의 어머니 ㅊ의 어머니	
	ㄱ의 어머니 ㄷ, ㄹ의 어머니 ㅁ의 어머니 ㅂ의 어머니 ㅅ의 어머니 ㅈ의 어머니 ㅊ의 어머니	
	ㄱ의 어머니 ㄷ, ㄹ의 어머니 ㅁ의 어머니 ㅂ의 어머니 ㅅ의 어머니 ㅈ의 어머니 ㅊ의 어머니	

* 아동 어머니의 무응답과 어머니의 불참으로 인하여 7명 어머니의 평가를 분석한 결과임.

좋겠다(ㄷ, ㄹ의 어머니)," "교육 시간을 더 늘리고 상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ㅁ의 어머니)," "어머니들이 각자의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보다 많은 상호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ㅂ의 어머니)," "전체적으로 가족들이 다 모여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ㅊ의 어머니)."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편모가족의 아동들이 자신과 가족, 친구,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과 대인관계를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아동 교육 프로그램 '행복한 우리 가족, 자랑스러운 나'를 개발하여 실시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자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느꼈던 점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양호 외 3인(2002)의 실태조사와 사전검

사 결과를 기초해 볼 때,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 대상 아동들은 입소 전 이미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 가정폭력 등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치심을 갖고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양부모 가정이나 재가 모자가정의 아동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에서 아동의 자존감 회복 및 증진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본 프로그램의 자존감 증진 교육 시간을 보다 늘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의 사회성 증진 교육을 통해 아동의 사회성 점수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동들의 사회성 수준이 프로그램 실시 전부터 높았던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사회성 척도에 응답할 때 시설 입소에 대한 강한 저항과 연구를 인식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과 해석시 주의를 요구한다. 또한 시설 입소 및 적응을 통해 여러 연령층의 아동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성을 발달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모자보호시설의 아동들과 재가 편모가정의 아동들의 사회적 적응을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모자시설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태도는 전반적으로 보호적, 성취지향적, 통제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의 단독 책임자로서 시설 모자가정의 어머니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부양자로서 자녀양육상의 절대적 시간 부족과 가족내 자원 부족(예, 경제적 빈곤, 아버지 역할 부재, 사회적 지원의 부족 등)으로(김미숙·박민정·이상현·홍석표·조병은·원영희, 2000), 어머니들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녀의 자율성을 통제하거나 학업적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일부 어머니들이 “엄마노릇이 뭔지 모르겠다. 당장 내 앞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아이와 잘 지내는 방법까지는 생각할 수 없다(ㄱ과 ㅅ의 어머니)”고 말함으로써 바람직한 부모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자녀양육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모자보호시설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이외에 어머니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에 참가한 아동 중 아버지의 폭력으로 부모가 이혼한 ㅅ과 ㅊ이나 기본 학습능력이 부족한 ㄴ은 주의 산만(ㅅ), 교사 및 다른 아동들과의 관계에서 빈번한 자기중심적 행동(ㅊ), 이해력 부족(ㄴ) 등으로 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이 점차 진행되면서 이러한 아동의 문제들이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태도에 기인하였음이 파악되었다. 예컨대 ㅅ의 어머니는 체벌을 자주 사용하고, 현재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압도되어 ㅅ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며, ㅊ의 어머니는 부모의 재결합을 원하는 ㅊ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로

꺼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ㅊ으로 하여금 내적 갈등을 겪게 하였다. 한편 아버지와 사별한 ㅇ은 한부모 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비교적 수용하는 편이나, 유독 재혼가족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임으로써 어머니의 재혼을 꺼려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본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모자보호시설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본 프로그램은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증진을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궁극적으로 시설 모자가정의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해서는 교육 연령층을 확대하여 청소년 자녀들의 가족생활 및 학교 적응을 돋는 프로그램도 실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발달적 특징과 시설 모자가정의 제한점(예, 성인 남성 역할의 부재, 부모의 감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 및 약물남용 방지 교육도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 및 모자보호시설 가족을 위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편모가족 아동의 건전한 인성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함으로써 미래의 건강한 사회인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본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하여 모자보호시설의 저소득 편모가족에 교육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문제를 예방하고, 모자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모자보호시설 종사자들에게 모자가정의 가족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적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시설의 사회적 지원 기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를 토대로 가족생활교육 및 상담 기관과 각 복지시설간의 연계를 정책적으로 모색함으로써 모자보호시설의 저소득 편모가족을 비롯하여 소외된 가족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가족과 성 상담소(1999). '99 한부모 가족사업. 한국여성민우회.
- 김경신(1997). 편모가족에 대한 가족생활교육 실태 분석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2), 187-199.
- 김기환(1995). 결손가정에서의 청소년 학대 및 방임 실태. 결손가정에 나타난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 김미숙, 박민정, 이상현, 홍석표, 조병은, 원영희 (2000).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 과제. 정책보고서 200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양호, 박정희, 유계숙, 전춘애(2002). 모자보호시설 입소모자가정의 가족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시설 종사자와 입소 어머니의 요구도 조사를 중심으로. 2001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연구보고서. *대한가정학회지*, 40(3), 99-113.
- 김영희, 김갑숙, 최외선(1995). 편모가정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 김정자(1985). 편부모 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여성연구*, 3(1), 37-78.
- 안명자(1994). 친족지원과 사별한 편모의 심리적 복 지감.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옥선화, 성미애, 허정원(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9(2), 1-13.
-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 서울 : 교문사.
- 이혜경(1998). 빈곤의 여성화: 한국 여성 빈곤의 원인과 결과. *빈곤퇴치: 한국의 경험과 교훈*. UNDP 한국대표부.
- 최선애(1984). 부친부재가 자녀의 정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1996).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한국여성개발원(1986). *모자여름학교 종합보고서*.
- 한국여성개발원(1988).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88 연구보고서 200-2.
- 황성철, 최선화(1997). 빈곤 모자가정의 삶의 질 측정과 사회사업적 개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1.
- Berg, B. & Kelly, R. (1979). The measured self-esteem of children from broken rejected and accepted families. *Journal of Divorce*, 2, 363-369.
- Berman, W. H., & Turk, D. C. (1981). Adaption and divorce :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1), 179-189.
- Booth, A., & Amato, R. (1991). Divorce and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396-407.
- Campbell, M. L., & Moen, P. (1992). Job-family role strain among employed single mothers of preschoolers. *Family Relations*, 41(2), 205-211.
- Gerstel, N. (1988). Divorce and kin ties: The importance of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1), 209-219.
- Hansen, S. M. (1986). Healthy single parent families. *Family Relations*, 35(1), 125-132.
- Kennedy, G. E. (1985). Family relationships a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from single-parent, blended and intact families. *Family Perspectives*, 19(2), 117-126.
- Peterson, J. L. & Zill, N. (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2), 295-307.
- Webster-Stratton, C. (1989). The relationship of marital support, conflict, and divorce to parent perceptions, behaviors, and childhood conduct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2), 417-430.
- Weiss, R. S. (1979). Growing up a little faster: The experience of growing up in a single-parent household. *Journal of Social Issues*, 35, 97-111.